

사회

■ 1급 지체장애인 병원 동행해보니 ...

도로 곳곳 장애물 ... 4km 이동에 반나절



손호성(51)씨가 지난 21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주공아파트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저상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는 26일부터 8일간 광주에서 '2010 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린다. 46개국 296명의 세계적인 장애인 탁구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전동 휠체어를 타는 지체 장애 1급인 손호성(51)씨.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집에서 4km 떨어진 병원으로 가야하는 손씨는 '진월 17'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안 휠체어 고정석은 일반 의자가 펼쳐져 있었고, 손씨를 위해 펼쳐진 의자

저상버스 이용 어렵고·콜택시 크게 부족 26일 열리는 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 광주 사는 장애인들 경기장 갈 엄두 못내

를 접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버스에서 내린 손씨에게 또 다른 장애는 불법주차 차량과 각종 장애물로 가득한 보도와 경사 높은 보도 턱이었다.

있는 것이다. 광주시가 일반버스보다 2배가량 비싼 저상버스를 구입해 배치했으나 구조적으로 보호자 없이는 타기 어려운데다 일부 노선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량과 정류장 사이에 받침대를 설치해줘야 하며, 탑승한 뒤에도 안전벨트를 매줘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1억원)보다 8500여만원이 비싸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교적 편리한 장애인 이동콜택시는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따르면 인터넷·전화 이동콜택시 예약은 모두 오전 9시 이전에 끝나 시급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들은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나원침 (8150) 김종두



호텔서 불법 게임장 운영

경찰, 운영자 등 6명 수사

광주의 한 호텔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된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동구 수기동 A호텔 지하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의 점수를 현금화해 계좌로 입금해 준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에서 손님 계좌 16개를 확보해 거래내역을 확보, 환전상 4명의 계좌를 추적해 지난 9월 20일부터 17일간 3000여차례에 걸쳐 10억원 가량이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입금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또 이 기간 동안 손님 한 사람에게만 모두 4200만원 가량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게임장 운영자 이모(44)씨 등 2명과 환전상 4명 등 6명을 불러 조사를 한 뒤 불법 사실이 입증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지하철 선로 투신

40대 장애인 부상

22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지하철 역에서 박모(41·정신지체 2급)씨가 역사로 진입하던 열차를 보고 선로로 뛰어 들었다.

박씨는 바닥과 선로 사이 50cm 가량의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다행히 열차에 치이지 않았으나 발목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주의 한 복지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교회서 잡자는 여신도 손가락 흠쳐

○순천의 한 교회 다음도실에 서 잡자고 있는 여신도의 손가락을 흠쳐 20대 절도범 2명이 경찰서행.

○2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모(21)·김모(21)씨 등 2명은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께 순천시 연향동의 한 교회 다음도실에 몰래 들어가 신도 김모(여·38)씨의 금팔찌·금목걸이·금반지 등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손가락을 몰래 가져갔다.

○경찰 조사결과 보육원 동기인 이들은 우연히 교회에 들어갔다 김씨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우리로 귀금속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조선대 '베트남 세종학당' 2주년 한국문화 알리기 첨병 역할 '톡톡'

호치민에 설립 ... 2년간 수료생 130여명 배출

조선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베트남 호치민시에 설립한 세종학당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알리기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선대는 22일 국립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세종학당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제4기 수료식을 갖고 28명에게 수료장을 수여했다. 수료생들은 베트남 한인기업 취업 희망자를 비롯해 한국인 남편을 둔 다문화 가정, 공무원, 학생 등 다양하다.

기념식은 전호중 조선대 총장과 보낸 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 총장, 김삼윤 호찌민 총영사,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선대는 지난 2008년 10월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호찌민 인사대에 한국어 학당을 설립했으며, 이번

수료생을 포함해 모두 130여명을 배출했다.

1년 2기 수료제로 운영중이며, 현재 초·중·고급반과 특별과정 등 8개 반에서 200여명이 교육중이다.

하루 4시간씩 모두 340시간의 강도 높은 교육을 하며, 전체 수업 시간의 20% 가량을 한국어 문화 교육 등으로 채우는 등 한국을 알리는데 한 몫하고 있다. 소수 인원 중심의 집중적인 교육, 조선대에서 파견한 이른바 원어민 교수의 철저한 지도, 현지 한인 기업과 학생 수준에 맞춘 눈높이 교육 등으로 지원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등 초기에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어를 전혀 몰랐던 학생들도 1~2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능숙하게 구사한다. 한국어 실력을 내세워 한국 기업에 취업하던 자국 기업보다 배 이상 많은 급여를 받는 점도 큰 매력이다.

조선대는 한국어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주고 최우수 졸업자 2명은 장학생으로 선발, 1년간 본교 유학도 우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선대 세종학당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베트남 엘리트들 사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호찌민 일부 고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조선대는 설명했다.

전호중 총장은 "베트남 사회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인력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며 "러시아와 중국 등 세계 각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22일 광주시 서구 유촌동에서 열린 '제3기동제대' 창설식에서 양성철 광주지방경찰청장이 김영란 제대장에게 선크림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광주경찰 여성기동제대 창설

집회 시위 현장·노약자 보호활동 전담

광주경찰이 여성경찰관으로 구성, 집회·시위 현장과 노약자 보호활동 등 내외빈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동제대 창설식을 가졌다.

경감급 제대장과 전문 훈련과 교육을 이수한 여성 경찰관 36명으로 구성된 제3기동제대(4개팀)는 각종 집회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와 교통관리·노약자 보호활동 등 안전과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

양성철 광주경찰청장은 "제3기동제대가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역할과 지혜를 결집해 주길 바란다"며 "집회·시위관리 전문 훈련, 인권 및 안전교육, 체력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with a map of Korea, '안개주의' (Fog Caution), and a table of regional weather conditions.

생활 게시판

화축

▲노원실·방수임씨 장남 정훈(광주일보 담당주제기자) 군 조기 순서 장녀 은희양=23일(토) 오전 11시 40분 광주 갤러리아 웨딩홀 2층(사파이어홀)

▲허건·이순기씨 장남 진우군 이후형(이후형피부과의원 원장)·부희영씨 장녀 재경양=23일(토) 오전 11시 서울 웨딩의 전당(그랜드홀)

▲이점옥·김계자씨 큰아들 대원군 김재환(법무사)·장정순씨 막내딸 연주양=23일(토) 오후 1시50분 광주 갤러리아 웨딩홀 1층(다이아몬드홀)

▲최기환씨 별세 장남·재운·숙자·성자·희자·옥자·오자씨 부친상 김공식·백종건·임형침(녹색연합 공동대표)·현병제씨 부부상=발인 24일(일) 장흥 중앙장례식장 061-863-4444.

▲이옥남씨 별세 정훈재·미재·석재·경재·행재·승재씨 모친상=발인 23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최기환씨 별세 손태원(손태원 치과원장)·정연씨 모친상 우기중(녹색성장기획단장)씨 빙모상=발인 24(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윤오중·이성숙씨 차남 원진군

부음

▲김기환씨 별세 장남·재운·숙자·성자·희자·옥자·오자씨 부친상 김공식·백종건·임형침(녹색연합 공동대표)·현병제씨 부부상=발인 24일(일) 장흥 중앙장례식장 061-863-4444.

▲이옥남씨 별세 정훈재·미재·석재·경재·행재·승재씨 모친상=발인 23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최기환씨 별세 손태원(손태원 치과원장)·정연씨 모친상 우기중(녹색성장기획단장)씨 빙모상=발인 24(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윤오중·이성숙씨 차남 원진군

Obituary notice for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We pray for the soul of the deceased) with details for a family member.

Obituary notice for '그인의 명복을 빕니다' (We pray for the soul of the deceased) with details for a family member.